

높은 요구율 불구, 타성 못 벗어나



12 전자업종 임투점검

요 대기업의 노조가 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조직률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거 전자업종에서 임투를 힘있게 벌여온 곳은 중소기업체들이었다.

해는 임투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광주공장 화재사건 이후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조가 정비되지 못한 채 임투는 사실상 뒤로 밀

려져 있다. 후생복지 제도 강화로 협조적 노사관계가 특징이다.

●AMK...청주와 서울 2개 공장에 조합원 2천여명으로 현재 단협이 진행중이다. 노조측에서

우리 산업에서 전자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지난 30여 년간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는데 전자산업이 기여한 공은 지대한 것이었고, 전자산업은 자동차·섬유 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생산·수출국으로 부상시켰다.

그러나 전자산업이 우리나라 수출 주력상품으로 부상하기까지 컨베이어벨트에 매달려 젊음을 불태웠던 전자산업 노동자들에게 돌아간 몫은 그다지 많지 않다. 오히려 수출 주력상품으로 자리잡으면서 강제된 저임금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금속노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90년 9월30일 현재 전자업종의 평균임금은 남자가 45만4천6백21원, 여자가 31만6천4백57원으로 전산업 남자 74만4천2백41원, 여자 41만6천40원에 비해 대단히 낮다. 이는 전산업 생산직 53만8천86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업계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수출이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지난 3월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경제기획위원회에서 경제기획원은 우리나라 수출 주력업종인 섬유·자동차·전자 분야에서 지난 3년여 동안 임금이 거의 두배 수준으로 상승, 수출업체의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 한자리수 이내 역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극히 낮은 전자업종의 임금인상을 막고 있다.

따라서 올 전자업종의 임금교섭은 그 어느 업종보다도 어려운 악조건 속에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을 낳고 있다. 즉 타 업종에 비

90년 평균 인상률은 15.8%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치상으로 보면 그리 낮지는 않으나 앞서 지적했다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저임금 상태를 극복하는 데는 미미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들 노조에서는 요구율이 20~40%여서 사실상 15.82%라는 수치가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최저한의 수준 이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사 노조 70개 중 쟁의발생 신고를 낸 노조의 수는 6개에 불과해 전자업종 노조의 현 상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임금교섭이 노동자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은 그만큼 힘이 미약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중심, 낮은 조직률로 대부분 노조 힘 미약 임투계기로 조합원 확보, 노조강화가 급선무

이는 또한 노조가 임금교섭에 임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조합원 대중을 추동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극히 상식적인 논리를 재확인해야 함을 의미한다.

어쨌든 올 임투와 주행선상에 들어선 전자업종 노조들의 인상 요구율은 전 업종중 가장 높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노협 공투본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를 대상으로 전노협이 집계한 자료

이같은 현상은 올해에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업체의 임투준비와 진행상황을 살펴본다.

●금성사...전국 8개 공장 7개 지부에 1만8천여명의 조합원을 아우르고 있는 대규모 업체로 90년 평균 일당이 8천9백83원. 아직 요구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12.1%의 인상률을 보였으며 교섭은 본조에서 진행했다.

저진 상태. 금성사와 마찬가지로 본조에서 교섭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의원들에게마저 관심을 불러 일으키지 못한 특징을 보여왔다. 구미지부에서는 3월27일 임금인상 요구안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대전자...경기도 이천에 소재하고 있는 7천8백명 규모의 회사로 조합원은 4천5백명 정도. 지난해 기본급 9.5% 수당 2%의 인상으로 정부의 한자리수 이내

는 동시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측에선 단협을 끝내고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월부터 설문조사, 1인 1요구안 분임토의를 거쳐 4월3일 조합원 총회에서 남자 6만5백18원, 여자 5만2백99원의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재 진행중인 단협의 쟁점사항이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은 많은 변화를 맞았다.

보통을 구성 소식을 발간하고 있다.

●아남산업...3천여명의 직원 중 조합원은 2백50여명. 위원장도 공식으로 직대체제로 유지하고 있다. 생활실태조사, 1인 1요구안 갖기, 복지실태 조사를 거쳐 4월 셋째주에 교섭에 돌입할 예정.

●모토로라...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회사측이 임금 일방인상을 통보한 사업장. 3월29일 14% 인상을 일방 통고 받은 노조는 현재 준법투쟁과 보고대회를 열며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2천8백명 규모에 조합원은 2백명 정도. 전 직원중 여성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회사측의 노조 무력화 기도에 맞서 8일부터 임금계조정 서명작업에 들어갔으며 조합원을 늘리는 게 목표.

●구미지역...금성사·대우전자 등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노조활동이 미약한 속에 임투 중반인 4월말경 구노협(지노협) 건설을 목표로 4월10일 구노협준비위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임투에서 '교섭을 통한 타결'이 대부분이었고, 올해도 전국적인 투쟁의 고조 여부에 편승하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대부분 6만~10만원선의 요구안을 내놓고 있다. 구노협 건설을 추진중인 5개 사업장의 임투 여하에 따라 타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련 서울본부...전기·전자분과는 구성되지 않았으나 남성전기·오토론 등 7~8개 사업장에서 매주 1회씩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향후 공동교섭을 모색하기 위해 모임을 갖고 있으나 현재는 정보교환 이상의 공동임투 전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금속노련내 타 분과보다 아직 연대의 틀이나 폭이 좁다. 남성전기가 7만원 정액 요구안을 마련 9일 교섭을 시작했으며, KDK는 15% 인상과 주44시간 근무를 골자로 교섭에 들어갈 예정.

(이대영기자)

대우전자부품노조



현재 우리 노조의 상태는 위원의 수배, 여성부장의 구속이라는 악조건에 처해 있다. 지난해 8월 안산 금강사건으로 인해 위원장 양규현 동지가 수배중에 있으며, 민주노조 말살책동인 노동부의 업무조사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해내는 과정에서 여성부장 이미덕 동지가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명으로 수원교도소에 갇혀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 노조에서는 업무조사의 본질이 노동운

이에 따라 3월초 설문조사를 토대로 기초 요구안을 작성했으며 3월 셋째주부터 현장토론, 확대간부 수련회를 거쳐 29일 요구안을 확정했다. 또한 단협도 동시에 들어가 조합원들의 복지, 인사경영권 획득을 이루어 낼 계획이다.

4월9일 우리 노조는 25.2%(7만5백23원)의 인상 요구안을 갖고 임금교섭에 돌입한다. 지난해 22% 인상 요구안을 갖고 교섭에 임해 쟁의발생신고를

업무조사거부로 의식 변화

동 탄압의 일환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 조합원의 결의로 당당히 거부하였으며, 이 거부투쟁의 과정을 통해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은 많은 변화를 맞았다.

내고 13.66%의 타결에 그쳐 불만도 상당히 누적돼 있다. 따라서 우리 노조는 올 임투만은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그러나 우리 노조를 둘러싼 악조건 또한 만만치 않다. 노조

우리 산업에서 전자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지난 30여 년간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는데 전자산업이 기여한 공은 지대한 것이었고, 전자산업은 자동차·섬유 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생산·수출국으로 부상시켰다.

그러나 전자산업이 우리나라 수출 주력상품으로 부상하기까지 컨베이어벨트에 매달려 젊음을 불태웠던 전자산업 노동자들에게 돌아간 몫은 그다지 많지 않다. 오히려 수출 주력상품으로 자리잡으면서 강제된 저임금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금속노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90년 9월30일 현재 전자업종의 평균임금은 남자가 45만4천6백21원, 여자가 31만6천4백57원으로 전산업 남자 74만4천2백41원, 여자 41만6천40원에 비해 대단히 낮다. 이는 전산업 생산직 53만8천86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업계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수출이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지난 3월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차 경제기획원 회의에서 경제기획원은 우리나라 수출 주력업종인 섬유·자동차·전자 분야에서 지난 3년여 동안 임금이 거의 두배 수준으로 상승, 수출업체의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 한자리수 이내 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극히 낮은 전자업종의 임금인상을 막고 있다.

따라서 올 전자업종의 임금교섭은 그 어느 업종보다도 어려운 악조건 속에 진행되리라는 예측을 낳고 있다. 즉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에도 불구하고 정부·사용자측의 임금인상 억제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어 자칫 힘에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우려는 여성이 많다는 업종 자체의 특수성과 함께 노조의 힘이 다소 미약하다는 조건에서 비롯되며, 사실 지난해의 임투에서도 이같은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지는 못했다.

금속노련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금속노련 산하 전자업체의

90년 평균 인상률은 15.8%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치상으로 보면 그리 낮지는 않으나 앞서 지적했듯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저임금 상태를 극복하는 데는 미미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들 노조에서는 요구율이 20~40%여서 사실상 15.8%라는 수치가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최저한의 수준 이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사 노조 70개 중 쟁의발생 신고를 낸 노조의 수는 6개에 불과해 전자업종 노조의 현 상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임금교섭이 노동자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은 그만큼 힘이 미약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중심, 낮은 조직률로 대부분 노조 힘 미약 임투계기로 조합원 확보, 노조강화가 급선무

이는 또한 노조가 임금교섭에 임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조합원 대중을 추동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극히 상식적인 논리를 재확인해야 함을 의미한다.

어쨌든 올 임투의 주행선상에 들어선 전자업종 노조들의 인상 요구율은 전 업종중 가장 높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노협 공투본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를 대상으로 전노협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업종의 평균 인상 요구율은 27.3%로 화학 24.2% 섬유 24.3% 금속(전기전자 제외) 26.6% 보다 높다.

그러나 요구율은 제일 높지만 요구액수로 환산하면 7만2천8백47원으로 평균요구액 8만1천79원에도 못미친다. 이는 전자업종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그만큼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전자업종 임투는 상대적인 선도업체가 거의 전무한 것도 주요한 특징중의 하나다. 이는 주

요 대기업의 노조가 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조직률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거 전자업종에서 임투를 힘있게 벌여온 곳은 중소기업체들이었다.

해는 임투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광주공장 화재사건 이후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조가 정비되지 못한 채 임투는 사실상 뒤로 밀

려지고 있다. 후생복지 제도 강화로 협조적 노사관계가 특징이다.

●AMK...청주와 서울 2개 공장에 조합원 2천여명으로 현재 단협이 진행중이다. 노조측에서

이같은 현상은 올해에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업체의 임투준비와 진행상황을 살펴본다.

●금성사...전국 8개 공장 7개 지부에 1만8천여명의 조합원을 아우르고 있는 대규모 업체로 90년 평균 일당이 8천9백83원. 아직 요구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12.1%의 인상률을 보였으며 교섭은 본조에서 진행한다. 올 임금교섭에서는 기본급 인상이 고율로 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제 수당의 신설과 인상을 통해 효과적인 교섭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섭위원이 본조 집행부와 각 지부장들로 구성돼 실질적으로 조합원 대중의 관심은 미약한 상태다. 4월 20일경 교섭을 시작할 예정.

●대우전자...광주 인천 구미 주안 등 4곳에 공장이 있으며 조합원은 7천8백명 정도. 지난해 14%의 인상률을 기록했으나 올

처진 상태. 금성사와 마찬가지로 본조에서 교섭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의원들에게마저 관심을 불러 일으키지 못한 특징을 보여왔다. 구미지부에서는 3월27일 임금인상 요구안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대전자...경기도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7천8백명 규모의 회사로 조합원은 4천5백명 정도. 지난해 기본급 9.5% 수당 2%의 인상으로 정부의 한자리수 이내 인상 방침에 따라 기본급에서 10%를 넘지 못했다. 올 임투에 대비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10명의 임투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9일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10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임투교육 5월4~5일 조합원 단합대회를 예정해놓은 상태. 2대 집행부가 조합원의 기대를 모으면서 출범했으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내의 비중 때문에 영향력이 크나, 연대활동은 미약한 편이다. 회사측의 편

은 동시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측에선 단협을 끝내고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월부터 설문조사, 1인 1요구안 분임토의를 거쳐 4월3일 조합원 총회에서 남자 6만5백18원, 여자 5만2백99원의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재 진행중인 단협의 쟁점사항이 조합원들의 관심사항으로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임금교섭과 병행해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금성전선...안양에 본조가 있으며 조합원은 4천여명, 남성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근속년수도 8.5년에 이른다. 3월28일 단협과 임금교섭 공문을 발송했으며 올 임금협상은 학력, 직종간 격차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단협에서는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출벌했으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내의 비중 때문에 영향력이 크나, 연대활동은 미약한 편이다. 회사측의 편

이어서...지나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회사측이 임금 일방인상을 통보한 사업장. 3월29일 14% 인상을 일방 통고 받은 노조는 현재 준법투쟁과 보고대회를 열며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2천8백명 규모에 조합원은 2백명 정도. 전 사원중 여성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회사측의 노조 무력화 기도에 맞서 8일부터 임금계조정 서명작업에 들어갔으며 조합원을 늘리는 게 목표.

●구미지역...금성사·대우전자 등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노조활동이 미약한 속에 임투 중반인 4월말경 구노협(지노협) 건설을 목표로 4월10일 구노협준비위

으로 보인다. ●금속노련 서울본부...전기·전자분과는 구성되지 않았으나 남성전기·오토론 등 7~8개 사업장에서 매주 1회씩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향후 공동교섭을 모색하기 위해 모임을 갖고 있으나 현재는 정보교환 이상의 공동임투 전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금속노련내 타 분과보다 아직 연대의 틀이나 폭이 좁다. 남성전기가 7만원 정액 요구안을 마련 9일 교섭을 시작했으며, KDK는 15% 인상과 주44시간 근무를 골자로 교섭에 들어갈 예정.

〈이대영기자〉

대우전자부품노조

우리노조임투출동

현재 우리 노조의 상태는 위원의 수배, 여성부장의 구속이라는 악조건에 처해 있다. 지난해 8월 안산 금강사건으로 인해 위원장 양규현 동지가 수배중에 있으며, 민주노조 말살책동인 노동부의 업무조사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해내는 과정에서 여성부장 이미덕 동지가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명으로 수원교도소에 갇혀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 노조에서는 업무조사의 본질이 노동운

이에 따라 3월초 설문조사를 토대로 기초 요구안을 작성했으며 3월 셋째주부터 현장토론회 확대간부 수련회를 거쳐 29일 요구안을 확정했다. 또한 단협도 동시에 들어가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계획을 이루어나갈 계획이다.

4월9일 우리 노조는 25.2%(7만5백23원)의 인상 요구안을 갖고 임금교섭에 돌입한다. 지난해 22% 인상 요구안을 갖고 교섭에 임해 쟁의발생신고를

업무조사거부로 의식 변화

동 탄압의 일환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 조합원의 결의로 단호히 거부하였으며, 이 거부투쟁의 과정을 통해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은 많은 변화를 맞았다.

그것은 이땅을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참모습에 대한 발견이었으며 우리가 임투를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우리 노조는 91임투가 노동자의의식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요구를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보다 힘있게 전개될 것이란 판단을 하고 91임투의 구체적 목표로 ▲생활조건 개선 ▲조직력 강화 ▲노동자의식 향상과 정치투쟁의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내고 13.66%의 타결에 그쳐 불만도 상당히 누적돼 있다.

따라서 우리 노조는 올 임투만은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그러나 우리 노조를 둘러싼 악조건 또한 만만치 않아 타노조와의 연대를 통해 돌파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그룹사간 회의를 갖고 있으나 아무래도 지역별 공동투쟁이 현실성 있다고 판단, 지역별 연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제 임투의 시동은 걸렸고 조합원 대중의 힘을 결집해 승리를 이루는 일만 남았다. 노동자의 어두운 현실을 깨부수고 구속동지 구출, 위원장 수배해제를 위해서도 우리는 단결과 연대의 힘을 모아낼 것이다.